천국 오펜시브(공격)팀

(고전5:1~13)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 오펜시브 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offensive 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즉 공격하는 팀입니다, offensive 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축구를 미식축구와 한번 비교해보면, 똑같이 축구라고 하는데, 영어로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는 축구는 soccer 라고 하고 미식축구는 american football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와 미식축구와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팀 구성의 차이일 것입니다.
축구는 경기에 나선 11명의 선수들이 공격수와 수비수로 나누어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11명 중에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격도 했다가 수비도 했다가 하는 mid fielder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최전방 공격수도 급하게 되면 수비에 가담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는 11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은 같지만, 예를 들어 뉴욕 자이언츠라고 하는 유명한 football 팀이나 시카고 베어스라든지, 그런 팀은 한 팀당 두 종류의 팀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공격 팀이 있고 수비 팀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 팀은 공격만 하고 수비 팀은 수비만 합니다, 축구처럼 11명의 선수 안에 공격수와 수비수가 같이 섞여있는 게 아니라.

룰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공격하는 팀이 네 번을 연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 동안에 10야드 이상 전진을 해야 됩니다.
10야드 이상 전진하면 다시금 네 번의 공격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격만 하는 거예요, 10야드를 전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수비만 하는 팀이 한 팀 안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식축구의 특징이라는 얘기에요.
offensive 팀이 있고 defensive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이 쭉 줄을 서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센터고 센터 뒤에 있는 사람이 쿼터백이고, 쿼터백 뒤에 풀백이 있고 그 뒤에 하프백이 있습니다.
센터가 가랑이 사이로 쿼터백에게 공을 넘겨주면 쿼터백이 자기 뒤에 있는 풀백이나 하프백에게 공을 전해줘서 그 공을 가슴에 끼고 뛰어가는 공격법이 있고, 또 여덟 명이 쭉 공격라인에 서있을 때 좌우의 맨 끝에 있는 와이드 리시버에게 막 뛰어가면 쿼터백이 공을 던져서 패스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을 껴안고 공격하는 방법과 공을 패스해서 그걸 받음으로써 10야드 이상을 빼앗는 그런 공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센터가 쿼터백으로 공을 넘겨주면 쿼터백은 작전에 따라서 자기 뒤에 있는 풀백이나 하프백에게 공을 넘겨줘서 그들이 공을 갖고 뛰게 하는 공격법을 하느냐, 아니면 안으로 뛰어 들어가 있는 와이드 리시버들에게 공을 패스해서 10야드를 나가게 하느냐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쿼터백을 중심으로 공격 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단체에 부여하신 특성을 따라서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offensive 팀입니다, 공격 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10야드씩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공격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10야드를 점령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교회 밖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심령들을 천국 안으로 빼앗아 들이는 겁니다.
그 빼앗아 들이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사건을 갖다 꽂

는 겁니다.
십자가를 갖다 꽂음으로써 그의 심령을 천국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으로 점령해 들어가는 offensive 팀, 공격수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는 특성을 상실해버리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는 특성을 상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꾸로 세상이 교회 안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점령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본문을 기록한 사도바울 선생님의 깊은 의도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한쪽으로 의문이 나게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사도바울의 귀에 전해지게 됩니다, 교회 분파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고린도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사도바울이 전해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교회의 분파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으로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 교인 중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낳은 생모일 수도 있고, 당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었던 사회풍습을 고려하면 아버지의 첩 중에서 상습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이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게 어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으며, 그것도 부끄러워서 몰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탄과 함께 3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영이라는 말을 구태여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관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이건 간과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멀리 에베소에 있지만 이미 내 마음으로는 고린도교회에 참여한 입장으로 그를 교회 밖으로 축출해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판단하였노라' 이 말에,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하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요.
그것도 몰래 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지날 텐데, 아주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버젓이 교인으로서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였다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4장 5절에 분파문제를 종결지어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소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들과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창녀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게까지 그들과 가까이 지내십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사도바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구절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이 사도바울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판단하지 말라, 판단한다, 왜 판단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는데 왜 판단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개인 영혼의 구원 문제와만 연관시켜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방인 중에서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이런 음행을 행한 자의 영혼문제를 어떤 맥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 개인의 영혼만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생각에는 고린도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어떻게 교회답게 유지해 가느냐 하는 관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의 영혼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놓여있고 공공연하게 이 사람의 죄악이 묵과되고 있는 교회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려면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길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쫓아냅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은 교회 바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 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 인간의 심성들이 뒤틀어지면서 그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고 음행하는 자를 묵과하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왜 쫓아내느냐?
교회는 천국 공격 팀입니다, 어떻게 천국 공격 팀이 될 수 있습니까?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됨으로써 천국 공격 팀의 한 사람의 공격수로서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맥락에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자,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차원과 마음의 차원과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육체가 접하는 대상과 육체가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육체를 통해 마음이 반응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우리 속에 누룩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육신을 통해가지고 이 세상이 내 마음 안으로 침범해 들어온 경우입니다, 즉 내가 세상에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정복당한 상태로서는 공격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양의 이야기가 이 맥락에서 다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양 되시는 주님과 죽을 때, 몸을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세상이 차단되고, 그렇게 차단이 됨으로써 비로소 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 육체를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뚫고 들어오려는 세상이 차단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구와 욕망, 육체가 있기 때문에 원하게 되는 모든 욕구들로부터 마음이 단절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마음속에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임하면서 천국 공격수로서의 준비가 되는 거라는 얘깁니다.
공을 쥐고 상대방 진영 속으로 10야드를 뛰어나가듯이 우리가 천국을 마음으로 쥐고 이 세상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인이고 이런 공격수들이 모인 팀이 교회에요, 교회는 offensive 팀, 천국 공격 팀이라는 겁니다.
천국 공격 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유월절 어린양이신 십자가를 마음에 꼭 쥐고 있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몸을 통하여 뚫고 들어오는 세상의 기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공격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음행하는 사람은 육신을 통해서 세상이 침범해 들어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그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함께 잠자리에 든 겁니다, 상습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공격수가 되기는커녕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먹힌 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놔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교회 안에서도 저럴 수도 있는가보다!' 그렇게 누룩처럼 번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어쨌든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받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어렵지요? 이런 겁니다.
천국 공격 팀 안에 머물 수는 없다, 그래서 천국 공격 팀인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고 그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이제 공격 팀인 교회의 일원인 교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세상을 공격해 들어갈 때, 또 다시 10야드를 점령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다시금 십자가복음으로 그 마음에 꽂아야 되는 공격의 대상으로 내쫓았다는 얘깁니다.
공격수들의 모임 속에 있던 자가 세상에 지배돼서 천국 공격수가 될 수 없으니까, 내쫓아가지고 천국 공격수들이 공격해 들어갈 때 점령해야 될 대상으로 바꾸어놓았다는 얘깁니다, 다시 한 번 십자가로 공략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십자가 복음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공격 받는 대상으로

만들어놓으라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죄 지은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대로 살려내는 겁니다, 사도바울 선생이.
이게 바로 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도 음행하는 문제에 대해 편지를 써서 권면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거니와' 이렇게 해놓고 나면, 고린도 도시 전체가 다 음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있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어디로 가서 살라는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실제로 음행을 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음행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음행만을 문제 삼지 않고,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 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음행의 문제로 시작한 얘기가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 하는 자들 모두를 다 일컫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탐하고 우상숭배 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공격수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이미 세상의 공격을 거꾸로 받고 세상에 의해 점령된 자들이 있다는 뜻인데, 이들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격수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나 이미 고린도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위적인 교회, 마땅히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교회를 지금 사도바울이 각고의 노력을 해가면서 안타까울 정도로 애를 쓰면서 마땅한 교회의 모습으로 고린도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교회는 세상의 침범을 받아서 공격수들의 모임이 많이 훼손되어 공격당하고 점령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끼어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무산시켜버릴 수도 없는 일이라, '고칠 것은 고치되 도저히 고치려고 시간을

벌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번져버릴 수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빨리 내쫓아라, 그럼으로써 교회를 공격수의 모임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리고 공격해 들어가는 중에 내쫓은 자들도 다시 한 번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십자가복음이 제대로 전해짐으로써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붙잡고, 세상이 육체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뚫고 들어올 때, 그 세상 영향력을 차단시키고 다시 한 번 그에게도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천국 공격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내쫓고 교회는 교회대로 공격 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시지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탐하는 자,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자,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낼 수도 없고 다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사도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사도바울의 고린도교회와의 관계에서보다 훨씬 큰 장점이에요.
이 장점을 살려서 죽어라고 십자가를 외치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의 육신을 통해서 세상의 영향력이 교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 세상의 가치를 획득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먹힌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도록 공격수들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복음을 전하므로 세상의 영향력이 차단된 그런 공격수들로 교인들 하나하나가 바뀌어갈 때 세상을 향한 10야드씩의 정복과정이 영혼을 점령해가는 일이 천국 공격수들에 의해서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세상에 대한 천국 공격 팀입니다.
천국을 안고 세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떨어짐이 없으므로 세상의 공격력을 차단하여 천국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확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이 온전히 세

상을 향한 천국 공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